

# 무주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전국 4위 과수 생산성·품질 높인다

### 행안부, 2025년 모금 실적 분석 결과... 전년 대비 93% 증가한 누적액 13억8800만원

무주군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 분석' 결과, 주민 수 대비 평균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 지방정부 중 4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주군의 2025년 12월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누적액은 13억8,8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모금액은 6만 932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대비 93% 이상 증가한 수치로, 무주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확산과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답례품 확대 등 활성화 노력에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무주에서는 △어르신 빈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 △무주 연극 동아리 활성화 지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차량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정 기부가 짧은 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은 모금액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으로,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추진해 지역 인재 육성과 문화복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기부자가 직접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부' 방식은 호응을 얻으며 모금 개시 3주 만에 목표액 대비 159%인 3



무주군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 분석 결과, 주민 수 대비 평균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 지방정부 중 4위에 올랐다.

천5백만 원을 달성, 조기 마감했던 '어르신 빈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도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

한편, 2025년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결과를 살펴보면 30대 기부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모금액이 49%에 달했다. 기부 방식은 온라인 기부가 97%이고 그중 민간 플랫폼 기부가 37%를 차지한다고 나타났다.

호응도가 높았던 답례품은 '무주산 고향화제 1일 입장권'과 지역상품권을 연계한 패키지, 청정 자연을 상징하는 '무주반딧불축제 신비탐사 이용권' 등 무주 특화형 답례품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59개로,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형 상품인 '반딧불이 신비 탐사권'과 '산골영화제 입장권', '향토산 자연휴양림 숙박권' 등 다양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초과분은 16.5%) 및 답례품(기부액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는 고향사랑기부금과 민간 플랫폼(웹로, 위기브),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무주=순홍기 기자

### 무주군, 농업 환경 선제적 대응 위한 과수 분야 지원 계획 발표

무주군이 2026년 과수 분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과수 분야 지원은 기후변화와 수입 과일 소비 확대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과수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수입 과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토대가 될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군에 따르면, 무주군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총사업비 12억3,000만원을 투입해 오래된 과일 구조를 개선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에 최적화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 목소리를 반영해 인건비와 묘목 등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품종경신을 비롯한 관수·관비 시설, 방풍망, 방상팬 등 생산 기반 시설 지원에 집중한다.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 과수원을 정보통신기술 장비, 무인화 시설, 재해 예방시설이 집적된 스마트 과수원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계화, 무인화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농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현대화 및 집단화된 과실 생산 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사업 1년 차인 올해는 8억9,000만원을 투입해 다축형 수형 전환과 국내 육성 품종 전환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과수 저온피해 예방제 지원,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 지원사업 등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보급 사업으로 전환해 예산을 편성했다.

병해와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무주군은 '과수 저온 피해 예방제 지원사업'에 8,000만원,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무주 사과'를 비롯한 복숭아, 포도 등 지역 특화 작목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순홍기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지난달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했으며 27일부터 3일간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했다.

동창욱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국정 전반의 방향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보고된 사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점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화목보일러 가용 가구 안전 관리 강화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설 명절 대비 상수도시설 사전 안전점검

장수군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5일간 관내 상수도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 고장과 단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배수지와 가압장, 송·배수관로 등 주요 상수도시설 전반이며, 시설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설 동파와 설비 이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구조물 상태와 기계·전기 설비 작동 여부, 비상전원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상수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상수도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입시 트렌드·맞춤형 로드맵 특강

### 진안군, 24일 겨울방학 입시특강·1:1 맞춤형 컨설팅 개최

진안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6 겨울방학 입시특강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대입 제도의 변화 속에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관내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역

역인재전형' 등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4일 오후 6시에는 진안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입시 트렌드 및 맞춤형 로드맵 특강이 열린다.

학습코칭 전문강사가 입시 컨설턴트 이어나 강사가 나서 대학입시제도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관내 학생

을 위한 필수 전략을 전수할 예정이다. 해당 특강은 별도의 제한 없이 관내 학생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춘 1:1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도 진행된다. 중학생에게는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을, 고등학생에게는 구체적인 대입 전략 및 영역별 공부법을 제시한다. 컨설팅은 오는 13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진안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학교 재학생, 관내 소재 회사 재직자 자녀라면 신청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농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진안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농경지 주변에 능형 울타리, 전기(태양광) 울타리, 그물망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농가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전·답·과수원 등 합법적인 농지에서 실제 경작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1월 30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경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농협·소속 단체, 장학금 300만원 기탁

장수군은 장수농협등조합과 소속 단체들이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장수농협등조합(조합장 김용준), 전국협동조합연합회본부, 장수농협지회(지회장 장현우), 장수농협 고향주부모임(회장 정은숙)이 지역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장학금은 장수군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수농협과 관련 단체는 평소에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의 역할을 실천하며, 교육·복지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 기탁 역시 지역 인재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김용준 조합장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장수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연중 무료

장수군은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시행한다.

무료 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기관과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료 접종은 평생 1회만 제공되므로, 과거 접종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